



**양계농가 부채, 매년 증가 추세
소비장세, 생산량과 수입증가 원인**

지난 2000년 11월에는 농업인들이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 마련을 위해 사상 유래 없는 시위에 나서 마침내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호금융자금의 금리인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해결 등을 골자로 한 농민단체의 청원과 각 정당에서 발의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되어 법안 심사소위로 넘겨졌다.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주장은 농산물생산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농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이익을 위한 수출 지향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입개방 때문에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의 시장을 잠식하여 나타난 부채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부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머지 않아 자생력을 잃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

은 부실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나간다면 모든 농민이 함께 도산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

아직도 낮은 농업생산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재배작물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지가 비싸고 규모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등의 외적인 저해 요인이 많아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전체 식량 중 자급율은 이제 30%대 이하로 낮아져 국방 다음으로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다.

양계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닭고기의 경우 수입산이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상이 15%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큰 거리감이 있다.

결국 5%정도의 초과 수입이 양계농가에 미치는 심적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영지표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실은 그만큼 부채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어가들이 대출하여 사용한 상호금

용자금들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농가 부채로 이어지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양계농가의 부채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농가들이 현금사료 이용은 강 건너 불 구경이고, 많게는 반년을 외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감안한다면 생산비의 가중은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남는 것이 없는데 누가 생산하라고 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앞서 전제했듯이 구조적인 결함에서 오는 손실은 모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농축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지도 모른다. 더 앞날을 위해 넓게 생각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2001년도 양계업 경기 변수 소비 증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안정되어 왔던 환율과 유가가 들쭉날쭉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연말 유럽연합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전면 금지 조치로 가금육의 경우 생산비가 약 5% 정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대체사료원료 가격이 상승하여 더욱 축산업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2001년도 상반기에 양계업은 과잉생산의 여지가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종계입식과 실용

계 생산점재력, 또는 배합사료생산실적으로 차후 육계와 계란가격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다. 물론 신빙성도 높아 통계를 누가 먼저 입수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가 판가름날 정도로 통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양계농가에 시설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를 능가할 만큼 생산시설이 등장한 이후로는 이 같은 가격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빈번해 지더니 어느순간부터인가 양계산물 출하가격은 국내 경기와 맞물려 가격이 형성되어 나가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신년을 맞이하여 벌써부터 양계인들의 이목은 금년 양계업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양계업 생산량은 벌써 그 토대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육계와 산란계의 종계입식이 어찌면 실용계의 생산량을 결정지을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입추시기가 도래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병아리 생산은 곧 입추라는 등식을 감안한다면 생산 여력은 과잉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수입양계산물은 국내가격과 맞물려 돌아가는 경향이 크다.

일부 기본적인 수입은 가격과 상관없이 이행이 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이고, 정도에 따라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역으로 커진다. 문제는 이 모두를 흡수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닭고기와 계

란의 소비흐름이다. 계절과 새로운 소비돌파구가 마련된다면 다소간의 생산증가는 흡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양계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소비지수라고 보는 것이다.

금년 설은 지난해보다 약 2주정도 앞당겨져 있다. 2월도 양계산물 소비가 많은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아직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상태이다.

과도한 실용계의 생산보다, 지나친 병아리의 생산보다는 건강한 닭으로 키워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진다.

생산성 못지 않은 자조금 활성화 소비장출과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2001년도 양계인들이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양계업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라고 보여진다.

WTO규정에 의거 정부가 과거와 같이 농가에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생산과 관련된 기금은 통제되고, 안전성 및 소비홍보 등 간접지원만이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자조금사업을 통한 양계산업의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몇 년째 양계업 자조금사업은 위축되어 왔던게 사실이고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작의 연륜이 짧은 타 분야는 더

욱 활성화되어 불황시 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전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비홍보사업이나 생산자들의 안전 양계산물 교육을 위한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막대한 기금이 수반되어야 한다. 금년 양계업 자조금사업 규모는 차마 공개하기조차 쑥스러운 액수이다. 이 기금도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결국 양계인들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체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필사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타 단체와 결과만을 놓고 비교하여 힐난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계산물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되어 주길 바라고 있다.

산업구조가 변화되어도 자체적으로 양계인들을 교육할 여건도 마련할 수 없다는 처지를 감안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신사년 새해에는 양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계업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려진 밥상에 앉기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앉기 싫어 굶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되새겨 보면서 신사년 새해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불투명한 미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계**